

♥ 죽음을 앞둔 희생자들이 남긴 전화 메시지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테러. 붕괴참사 현장이나 피랍비행기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은 사망 또는 실종되기 직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통해 처절한 마지막 말을 남겼다.
어떤 희생자들은 죽음을 이미 각오한 듯 사랑한다는 말을 되뇌며 저 세상에서 만나자는 말을 남겨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여보 사랑해 .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애. 근데 나는 아마 살 수 없을것 같애. 여보 사랑해. 애기들 잘 부탁해.(보스턴 글러브 보도: 지난달 월드트레이드센터에 있는 직장에 취직해 출근하기 시작해 지난 11일 변을 당한 스튜어 멜처(32)가 부인에게 남긴 전화)

△사랑해 . 월드트레이드센터에 지금 있는데 이 빌딩이 지금 뭔가에 맞은 것 같애. 내가 여기서 빠져 나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 여보 정말 당신을 사랑해. 살아서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안녕...(CNN 래링 킹 라이브 보도:채권거래회사 캔터 피츠제럴드의 채권브로커 케네스 오켄이 부인 로리에게 실종 직전 남긴 전화메시지)

△여보! 나 브라이언이야. 내가 탄 비행기가 피랍됐어. 그런데 상황이 아주 안좋은 것 같애.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 다시 볼 수 있게되면 좋겠어.만약 그렇게 안되면.... 여보 인생 즐겁게 살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 알지. 나중에 다시 봐.(보스턴 헤럴드 보도: 월드트레이드센터빌딩에 충돌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175기에 타고 있던 승객 브라이언 스위니(38)가 부인 줄리에게 자동응답기를 통해 마지막으로 남긴 전화메시지)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우리 딸 에미도 정말 사랑해.그 애 좀 잘 돌봐 줘. 당신이 남은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꼭 행복해야 돼. 나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할꺼야. 그리고 그 결정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할꺼야.
(NBC 보도: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기에 타고 있던 승객 제르미글릭이 추락직전 부인 리즈베스에게 마지막으로 한 전화내용)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섬김과봉사 *의명성-명예
제 9권 25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6월24일
☎ 369-5077 Howe St. City (Auckland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十 가장 귀한 축복

한 청년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다가 한양에서 과거 대신 외국 선교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여 기독교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보라는 과거는 안보고 예수쟁이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부모님이 예수 믿지 말라고 핍박합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아들에게 예수 귀신 붙었다고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의 핍박을 견디다 못한 청년은 병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멀쩡한 아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다가 병어리 만들어 놓았으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가 말만하면 네 소원 다 들어줄 테니 말만하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 청년은 병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병어리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 길래 그토록 네 마음을 빼앗아 갔는지 어디 나도 한번 믿어보자”하고 예수를 믿어 마침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바로 신바람 박사, 아멘 박사의 주인공 황수관 박사의 할아버지입니다. 황수관 박사는 자신의 가운을 자랑하면서 나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집안의 복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 결과 내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특권을 누리고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게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받은 가장 귀한 축복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믿음의 가문 예수님의 가문에 태어난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찬양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갈 이
Apostle's Creed		
*찬 송	34 장	다 갈 이
Hymn		
*성 시 교 독	22 (시편 96)	다 갈 이
Response Reading		
교 회 소 식		인 도 자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403 장	다 갈 이
Hymn		
기 도		현석호 안수집사
Pray		
성 경 봉 독	고린도전서 15:8-11	인 도 자
Scripture Reading		
성가대 찬양	"기쁜맘으로 승리의 노래부르리"	나무십자가 성가대
Choir		
설 교	"나의 나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태한 목사
Sermon		
찬 송	410 장	다 갈 이
Hymn		
헌 금 기 도		인 도 자
Offering Pray		
응 답 송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갈 이
Response Song		
축 도		이 태한 목사
Benediction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 824	총액: \$ 317,789.70
---------------------	-------------------

◆6,7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응답송	안 내
10	최득수		본당:권사
17	최재학		
24	현석호		현관 : 장현중 정덕수 새교우:이광희 이근평
01	고성일		윤주야 장유진
08	권용일		

◆7월의 교회력◆

	행 사	예배와 모임
1	맥추감사주일	헌신예배
8		구역예배
15	전교인체육대회	창립기념예배
22		남녀선교회월례회
29		

『교회 생활』	『교회 등록』
2007 신앙생활 :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3주간 예배, 친교 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일 7:00

* 등록을 원하시는 새 교우는 예배후 새 가족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 창립 8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교인 체육대회 개최
*일시 : 2007년 7월 15일 오후 12시
*장소 : 학교 체육관 (현재 학생부 예배장소)
*주관 : 제4 남선교회 (행운권 추첨을 위한 물품을 기증 받습니다. 문의 박영태집사 528-0866)
- 교우소식 : <부친 별세> 윤명화 성도
-아버님을 떠나보내는 딸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 합니다 -
- 수요일예배 장소 변경 안내 : 이번주(6월27일) 수요일예배 장소가 변경됩니다
*장소 : 학교 구 체육관(현재 중고등부 예배장소)
*주차장 : 4 Gate 또는 Hometown (체육관 마당)
-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제4번 Gate 놀이터에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 6월 정기당회가 예배후에 있습니다 (2 Dress Room)
- 다음 주일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좌석은 가급적 앞자리와 가운데부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착한 시인들 ▶

욕심쟁이

- 성재경 -

내게 늘 파란 하늘 같이 맑은 영혼이 있기를
내게 늘 푸른 바다같이 깊은 사랑이 넘치기를
아닙니다 다시하겠습니다.
내가 늘 그럴듯한 위선자로 남아 있지 않기를
내가 늘 불행의 전파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사실은 그것도 엄청난 욕심입니다.

선한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용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안을 돌아보지 않는
선의 추구는 아름다움을
가장한 위선일 뿐입니다.

나의 선한 추구가 남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될 때
비로써 선을 향한 욕심은
거룩한 욕심일 것입니다.